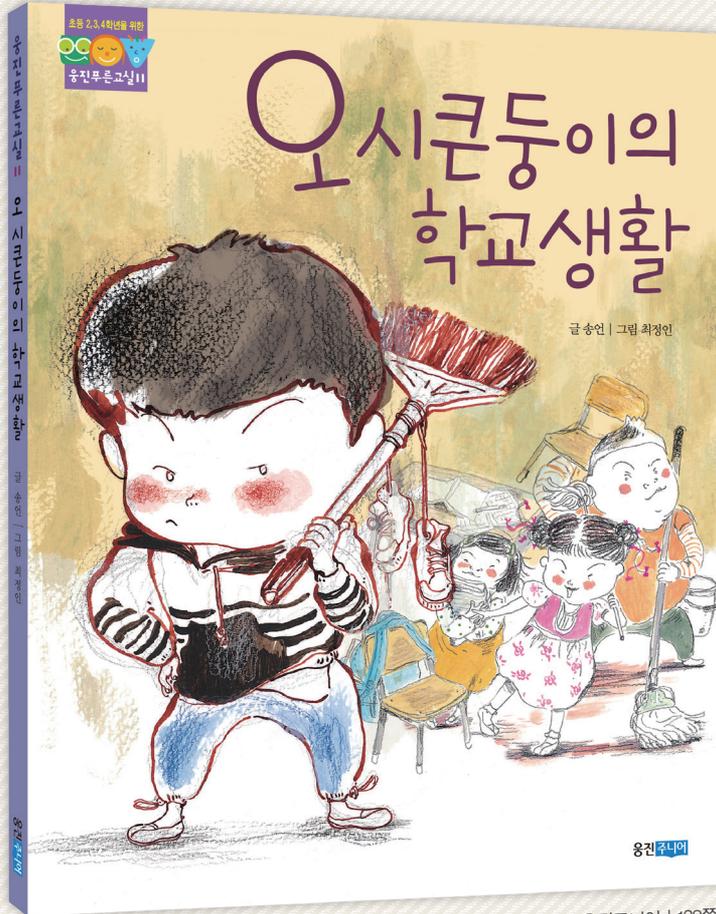


독서수업
지도안
학생용

초등학교 3학년

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



송언 글 | 최정인 그림 | 응진주니어 | 128쪽

독서수업 주안점

- 읽기 경험과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태도 기르기
- 재미나 감동을 느끼며 작품을 즐겨 감상하는 태도 기르기
-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며 스스로 작품을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
-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
-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

표지 탐색하기

이름 :

💡 〈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〉을 읽기 전에 책 제목과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.

1) 책 제목 ‘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’을 보면,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가요?

⇒

2) 앞표지에 있는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?

⇒

3) 책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“우아, 학교가 이런 거구나!” 오 시큰둥이의 상상 초월 학교 적응기

“야, 학교가 원래 이런 거야?”

오 시큰둥이가 불쑥 물었고, 김 똥보가 제격 되물었다.

“왜? 학교가 이상해?”

“아니, 학교가 재미있어서 말이야.

얼마 전까진 학교가 재미없었거든.“

① 학교에 대한 ‘오 시큰둥이’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 보세요.

() ⇒ ()

② 학교에 대한 ‘오 시큰둥이’의 생각이 위와 같이 바뀌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요? 이 책에서 펼쳐질 이야기(‘오 시큰둥이’가 겪게 될 사건)를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.

⇒

어휘력 쓱쓱 키우기(1)

이름 :

💡 <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>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

- (가) · 그곳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얼키설키 처박혀 있었다.
- 생글 공주는 남자 화장실 앞에서 꼬장꼬장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.
 - 생글 공주가 왈딱 뒤돌아서며 몰아쳤다.
 - 순간 정 새침데기는 북받치는 설움을 어찌하지 못하고, 허위허위 자기 자리로 돌아가, 나무토막이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다.
 - 정 새침데기가 제껴 맞장구쳤다.
- (나) · “선생님이 네 몸뚱이를 꽂꽂 묶어 놓을 것이다. 눈도 가릴 것이다. 그 상태에서 선생님을 찾아내는 거야. 옛날엔 이 놀이를 ㉠□□□□라고 했지.”
- 그런 다음 ㉡□□□□ 놀이할 때 묶는 끈으로 두 손과 두 다리를 꽂꽂 묶었다.

1) (가)의 밑줄 친 각 낱말에 알맞은 뜻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순서대로 쓰세요.

- ① 영성하고 조잡한 모양.
- ②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모양.
- ③ 갑자기 뒤집히거나 젖혀지는 모양.
- ④ 성미가 끈고 결백하여 남의 말을 좀처럼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.
- ⑤ 어떤 일을 아주 시원스럽게 빨리 해치우는 모양인 ‘제꺼덕’의 준말.

2) 다음 뜻을 참고하여 (나)의 빈칸 ㉠~㉡에 각각 들어갈 말을 쓰세요.

- ㉠□□□□ : 술래가 수건 따위로 눈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잡는 놀이. 잡힌 사람이 그다음 술래가 된다.
- ㉡□□□□ :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로 맞닿은 쪽의 발목을 묶어 세 발처럼 하여 함께 뛰는 경기.

어휘력 쑥쑥 키우기(2)

이름 :

💡 〈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〉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.

- (가) · 조 줍쌀뱅이는 하는 것이 () 같아서 별것도 아닌 일에 툭툭 끼어든다.
 · 교실 안은 조용했고, 창밖엔 3월의 ()이 불고 있었다.
 · 그리고는 ()를 치는 수탉처럼 목을 길게 잡아 뽑으며 외쳐 냈다.
 · “()의 이서연이 방긋 웃는다!”
 · “제가 ()을 해 볼까요?” / “무슨 ()?”
- (나) · 오 시큰둥이는 숨을 ㉠색색거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. 청소함 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. 무서운 느낌이 청소함 밖으로 사뭇사뭇 밀려 나갔다.
 · 오 시큰둥이 콧등에 송알송알 땀방울이 돋았다. 정 새침테기는 오 시큰둥이의 양옆에 서서, 경주하는 토끼와 거북이처럼 ㉡색색거렸다.

1) (가)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낱말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.

- ① 솔솔바람 : 부드럽고 가볍게 계속 부는 바람.
- ② 줍쌀영감 : 줍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③ 길썰 : 길의 가장자리. 흔히 풀이 나 있는 곳을 가리킨다.
- ④ 췌 : 새장이나 닭장 속에 새나 닭이 올라앉게 가로질러 놓은 나무 막대.
- ⑤ 중계방송 : 극장, 경기장, 국회, 사건 현장 등 방송국 밖에서의 상황을 방송국이 중간에서 연결하여 방송하는 일.

2) 다음은 ‘색색거리다’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은 것입니다. 문맥으로 볼 때, (나)의 밑줄 친 ㉠, ㉡은 각각 ㉢, ㉣ 중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알맞게 짝지으세요.

- ㉢ 숨을 고르고 가늘게 쉬는 소리를 잇따라 내다.
- ㉣ 숨을 조금 빠르고 고르지 아니하게 쉬는 소리를 잇따라 내다.

학교가 뭐 이래?

이름 :

💡 <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>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“ 쌤, 이거 학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!” / 수학 시간에 오 시큰둥이가 뻑 소리쳤다.

오 시큰둥이는 국어 시간에도 시큰둥하고, 수학 시간에도 시큰둥하고, 체육 시간에도 시큰둥하다. 털보 선생님이 뚜벅뚜벅 다가가 물었다. / “그래서?”

“다 배운 걸 왜 또 배우냐고요.” / 오 시큰둥이는 코끝을 찡긋, 입술을 찔룩했다. 기분이 안 좋다는 표시다. / “학원에서 다 배운 거라도, 학교에서 한 번 더 공부하면 안 되니?” / “싫어요! 저는 배운 거 또 공부하는 거 싫어요!”

털보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커졌다. / “그래서 어찌겠다는 건데?”

“저는요, 한 번 배운 거 다시 공부하면요, 머리가 콕콕 쑤셔요.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. 저는 공부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?”

(나) 오 시큰둥이 다음으로 공부 시간에 시큰둥한 아이는 김 똥보다. 김 똥보는 공부하는 것보다 오 시큰둥이 행동을 구경하는 걸 더 좋아한다. 그래서 오 시큰둥이의 행동은 번번이 김 똥보의 눈에 먼저 걸려들었다. 김 똥보가 소리쳤다.

“선생님, 시큰둥이가 또 사물함 뚜껑 열고 있어요!”

오 시큰둥이는 도둑질하다 들킨 고양이처럼 움찔 동작을 멈추었다.

1) (가)에 나타난 ‘오 시큰둥이’와 ‘털보 선생님’의 대화를 정리해 봅시다.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오 시큰둥이 : □□에서 다 배운 것을 □□ 공부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서 □□가 콕콕 쑤신다고 말했음.



털보 선생님 : □□에서 다 배운 것이라도, □□에서 □□□ 공부하면 안 되냐고 말했음.

2) (나)에서 ‘김 똥보’가 좋아하는 것과 반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을 쓰세요.

- 좋아하는 것 :
- 가장 먼저 보는 것 :

한판 놀아 봐요 / 오늘은 뭐 하고 놀지?

이름 :

💡 <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>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오 시큰둥이는 뚜뚜 상자 안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았다. 그리고 있으니 자기가 3학년 1반에서 잃어버린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. 오 시큰둥이는 청소함 안에서 문을 살짝 닫았다. / 불 꺼진 방처럼 청소함 안이 캄캄해졌다. 무섭증이 왈칵 밀려들었다. 오 시큰둥이는 청소함 밖으로 튀어 나갈까 잠깐 망설였다. 하지만 참기로 했다. 그 정도 무섭증도 못 참으면서 어떻게 교실에서 재미있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담, 하고 자기 마음을 다독다독해 주었다.

오 시큰둥이는 숨을 색색거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. 청소함 안으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다. 무서운 느낌이 청소함 밖으로 사뭇사뭇 밀려 나갔다.

(나) 며칠이 지나자, 오 시큰둥이는 서서히 풀이 죽기 시작했다. 하루에 열두 번씩 엎드려 뻗쳐 벌을 받으면서, 열세 번째 장난을 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. 이윽고 3학년 1반 교실은 술술바람마저 잠이 든 숲처럼 잠잠해졌다.

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. 3학년 1반 아이들이 햇볕 못 받은 시금치처럼 시들시들 시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. 학교가 재미없다며 툭툭대는 아이들도 하나, 둘, 셋 늘어났다.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3학년 1반은 곧 죽은 교실에 될 게 뻔했다.

1) (가)에서 ‘오 시큰둥이’가 한 일과 느낌을 정리해 봅시다.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□□□ □으로 들어가 쪼그리고 앉아 있으니 3학년 1반에서 □□□ □ □□가 된 기분이었음.	➔	□□□ □을 상자 안이 캄캄해 졌고, □□□이 밀려들어 나갈까 잠깐 망설이다가 참기로 했음.	➔	가만히 있으니 청 소함 안으로 희미 하게 □이 새어 들어왔고, □□ □□□이 밀려 나갔음.
--	---	--	---	---

2) (나)에서 ‘3학년 1반 아이들’이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한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.

➔

개밥의 도토리 / 학교가 이런 거야?

이름 :

💡 <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>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생글 공주와 정 새침데기가 하루하루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더니, 한 발짝 두 발짝 가까워졌다. 그러다가 마침내 오 시큰둥이를 밀쳐 버리고 둘이 단짝이 되어 찰싹 붙어 버렸다. 오 시큰둥이는 두 여자 친구에게 밀려나 외톨이가 되었다.

세상에! / 오 시큰둥이는 끝내 ‘개밥의 도토리’ 신세가 되었다. 오 시큰둥이를 원래 자리로 쫓아내고, 생글 공주와 정 새침데기가 대장 자리에 앉겠다고 할 판이었다.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순식간에 벌어져 버렸다.

(나) 털보 선생님은 오 시큰둥이에 대해 신경을 딱 끊었다. 무슨 짓을 하든 모른 채 할 작정이었다. 1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다. 김 똥보는 교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목을 길게 뽑았다. 그리고는 혼자 호들갑을 떨었다.

“얘들아, 얘들아! 시큰둥이 혼자 밖에서 놀고 있다!” / 조 좁쌀뱅이와 몇몇 아이들이 웅성 웅성 맞장구쳤다. / “야, 우리도 나가서 놀자!” / 아이들은 소리소리 지르며 밖으로 튀어 나갔다. 그러나 아이들은 오 시큰둥이와 사뭇 달랐다. 종이 울리자 하나둘 교실로 들어왔다. 오 시큰둥이만 끝끝내 들어오지 않았다.

1) (가)에서 ‘오 시큰둥이’는 단짝이 된 ‘두 여자 친구’에게 밀려나 외톨이가 되었습니다. 만약 여러분이 ‘오 시큰둥이’의 처지라면 어떻게 할지 써 보세요.

⇨

2) (나)에 나타난 ‘오 시큰둥이’의 행동과 ‘반 아이들’의 행동의 차이점을 쓰세요.

⇨

소풍이 뭐 이래? / 우리는 친구

이름 :

💡 〈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(가) 3학년 1반 아이들은 싸움에 진 줄병처럼 터덜터덜 걸어 식물원에 도착했다. 길
게 한 줄로 늘어서서 갖가지 식물을 구경했다. 꽃사슴 먹이 주는 것보다 훨씬 재미없
었다. 오 시큰둥이는 계속 툭툭거렸다. / “소풍이 뭐 이래? 재미가 뽕점이잖아!”

오 시큰둥이를 따라 툭툭거리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.

(나) 오 시큰둥이는 3학년 1반 교실로 정신없이 뛰어 올라갔다. 교실 문을 드르륵 열
어젖혔다. 김 똥보는 자리에 앉아 아침 자습을 하고 있었다.

김 똥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. / “시큰둥이야, 너 왜 우리 집에 안 왔어?”

오 시큰둥이는 헉헉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.

“나 말이야, 깜박 잊고 학교에 바로 왔다가, 깜짝 놀라서, 너희 집으로 뛰어갔다가,
헉헉, 지금 다시 돌아오는 길이야.” / “아, 길이 엇갈렸구나.”

“그, 그런가 봐, 헉헉, 미안 김 똥보, 미안.” / 오 시큰둥이는 자리에 앉지도 못 하고
썩썩거렸다. 김 똥보가 다가 오 시큰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.

“괜찮아, 괜찮아. 우리는 친구잖아.” / “그래, 그래. 우리는 친구지.”

1) (가)에서 ‘오 시큰둥이’와 ‘반 아이들’이 점점 툭툭거렸던 이유를 파악하여 쓰세요.

⇒

2) (나)에서 ‘오 시큰둥이’와 ‘김 똥보’는 길이 엇갈린 상황입니다.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
할 때,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.

<p>오 시큰둥이: □□에 바로 왔다가 깜짝 놀라서, □□□□□으로 뛰어갔다 가, □□ 학교로 돌아왔음.</p>	<p>김 똥보: □에서 오 시큰둥이를 기다리 다가 □□에 와서 자리에 앉아 □□ □□을 하고 있었음.</p>
--	--

오 시큰둥이가 □□□□고 말하자, 김 똥보가 우리는 □□라며 □□□□고 말했음.

김 똥보 중계방송

이름 :

💡 〈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〉에서 발췌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.

오 시큰둥이는 학교 가는 일이 즐거웠다. 날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. 가는 길에 김 똥보네 집에 꼭 들렀다. 김 똥보는 오 시큰둥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기분 좋게 맞아 주었다.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툴툴루 학교에 갔다.

“야, 학교가 원래 이런 거야?” / 오 시큰둥이가 불쑥 물었고, 김 똥보가 제격 되물었다. / “왜? 학교가 이상해?”

“아니, 학교가 재미있어서 말이야. 얼마 전까진 학교가 재미없었거든.”

“나는 말이야, 너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게 즐거워. 솔직히 말할게. 공부하는 것보다 네가 장난치는 걸 구경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. 나는 말이야, 처음부터 너랑 친구가 되고 싶었어. 너랑 친구가 되니까 참 좋아.”

“나도 너랑 친구가 되어 정말 좋아. ㉠하지만 학교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어. 그럴 땐 정말 끔찍해.” / 김 똥보가 툭 내뱉었다. / “좋은 방법이 있어. 학교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면 말이야, 밖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는 거야.”

“야, 그게 말이 되냐. 어떻게 밖으로 날아가?” / “그냥.”

1) 윗글에서 ‘오 시큰둥이’와 ‘김 똥보’는 친구가 되어서 좋고,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는지 떠올려 보고 그 친구에 대해서 써 보세요.

⇨

2) 윗글에서 ‘김 똥보’가 ㉠과 같이 말하자 ‘오 시큰둥이’가 제안한 방법은 무엇인지 쓰세요.

⇨

독해력/표현력 쑥쑥 키우기

이름 :

1) 다음은 〈오 시큰둥이의 학교생활〉에 나온 그림들입니다. 각 그림을 보고 ‘오 시큰둥이’가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구체적으로 써 보세요.



①



②



③

2) 이 책에서 ‘오 시큰둥이’는 학교생활에 시큰둥했다가 친구가 생겨서 점점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?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.

· 재미있는 것 :

· 재미없는 것 :

정답과 해설

3쪽	<p>(예시답안) 1) 성이 오 씨이고 시큰둥한 성격을 가진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다.</p> <p>2) 운동화의 끈이 걸려있는 빗자루를 왼손으로 잡고 왼쪽 어깨에 걸친 남자아이가 시큰둥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결눈질하고 있다. 그 뒤에 책을 든 여자아이, 먼지떨이를 든 여자아이, 대걸레를 든 남자아이가 즐겁게 교실을 청소하고 있다.</p> <p>3) ① 학교가 재미없다. ⇨ 학교가 재미있어졌다. ② 생략. 각자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.</p>
4쪽	<p>1) ①, ④, ③, ②, ⑤</p> <p>2) ㉠ : 까막잡기, ㉡ : 이인삼각</p>
5쪽	<p>1) ②, ①, ④, ③, ⑤</p> <p>2) ㉠ : ㉡, ㉢ : ㉣</p>
6쪽	<p>1) 학원, 다시, 머리 / 학원, 학교, 한 번 더,</p> <p>2) · 좋아하는 것 : 오 시큰둥이의 행동을 구경하는 것 · 가장 먼저 보는 것 : 오 시큰둥이의 행동</p>
7쪽	<p>1) 청소함 안, 잃어버린 아이 / 청소함 문, 무섭증 / 빛, 무서운 느낌</p> <p>2) 장난을 치던 오 시큰둥이가 서서히 풀이 죽어서</p>
8쪽	<p>1) (예시답안) 오 시큰둥이처럼 내가 두 여자 친구에게 밀려난다고 해도 외톨이나 개박의 도토리 신세라고 느낄 것 같지 않다. 다른 남자 친구도 있고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. 처음에는 자기들이 좋다고 와서 단짝이 되다니 웃기다고 생각한다.</p> <p>2) 쉬는 시간에 밖에서 놀다가 종이 울리자 반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왔지만 오 시큰둥이는 끝끝내 들어오지 않았다.</p>
9쪽	<p>1) 소풍을 갔는데 꽃사슴 먹이 주는 것과 식물 구경이 재미가 없어서</p> <p>2) 학교, 김 통보의 집, 다시 / 집, 학교, 아침 자습 / 미안하다. 친구, 괜찮다</p>
10쪽	<p>1) (예시답안) 나와 보람이는 아침마다 같이 학교에 갔다가 수업이 끝나면 같이 집에 오는 친구이다. 아직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지만, 유치원을 같이 다녀서 사귀게 된 친구이다.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어서 너무 좋고 같이 학교 다니는 것이 즐겁다.</p> <p>2) 학교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으면 밖으로 훨훨 날아가 버리라고 했음</p>
11쪽	<p>1) ① 오 시큰둥이가 두 손을 묶고 눈을 가린 상태로 선생님을 찾는 까막잡기를 하는 장면, ② 오 시큰둥이가 교실 앞문을 열어젖히며 친구에게 말을 거는 장면, ③ 오 시큰둥이가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배운 덕석 놀이를 하는 장면</p> <p>2) 생략</p>

응진 주니어

값 8,000원



9 788901 107448
ISBN 978-89-01-10744-8
ISBN 978-89-01-02850-7(세트)



KC 마크는 이 제품이
공통안전기준에 적합
하였음을 의미합니다.

△주의
책 모서리에 다치지
않도록 주의하세요.